

새내기 매거진



1

기사

새내기학부가 1년동안 지나온 행사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각 기사의 말미에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입학식
신입생 OT
새내기운동회
온라인 소통창구
시험기간

2

앙케이트

새내기학부 25학번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유니스트에서 진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재미있고 실감나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3

기사

새내기학부가 1년동안 지나온 행사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각 기사의 말미에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CA 멘토십
성년의 날
UNlverse
학업제도
UNISIVSION

4

앙케이트

새내기학부 25학번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유니스트에서 진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재미있고 실감나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5

스너그 백일장

한글날을 맞아 새내기학생회에서 [스너그 백일장]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금상 ; 안호연 - 무지(無知)의 지(知)

은상 ; 이혜빈 - 나무에게 배운 소망, 한 걸음

동상 ; 김어진 - 설익은 나날의 기록

부록 ; 전태화 - 새내기매거진 편집장의 말

6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소개

제8대 새내기학생회 단체 사진

‘한울’ 회장단 소개

‘한울’ 문화복지국 소개

‘한울’ 학사국 소개

‘한울’ 소통홍보국 소개

‘한울’ 사무국 소개

‘한울’ 대내협력국 소개

새내기매거진 편집위원회 소개

01

입학식

UNIST와 새내기들의 첫 만남

2월 21일, UNIST 대강당. 새로운 청춘의 첫 발걸음이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봄, 열정, 시작 등 그 어떠한 수식어도 부족한 새내기들의 이 하루. 학교는 이 특별한 하루를 기념하기 위하여 멋진 포토부스들과 학위복을 입은 윤이 인형, 다양한 푸드트럭들을 준비했고, 새내기 학생회 분들은 학교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곳곳에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가득 채운 활기가 유니스트에도 봄이 온 듯 하였습니다.

푸드트럭 맞은편에서는 유니스트 후원자에게 유니스트의 마스코트, ‘윤이’인형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총 학생 498명, 학부모 약 800여명이 참여한 입학식은 유니스트의 오케스트라 ‘UNISTRA’의 공연과 교수합창단의 노래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학생 대표의 입학 선서, 총장님과 저명 인사 분들의 말씀이 25학번 새내기들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박종래 총장님은 입학식 연설에서 “UNIST Pioneer는 익숙한 길을 따르지 않고,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 “신입생 여러분은 과학과 기술, 창의적 사고를 길러 세상을 바꿀 주역이 될 것”라고 말씀하시며 새내기들이 UNISTAR로써 걸어갈 길을 응원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유니스트를 대표하는 응원단 ‘유니크’의 절도있고 웅장한 공연이 이어졌고, 학부모님들의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가 스크린을 장식했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영상편지를 시청하면서, 격려했던 사춘기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격려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른으로써 한 발자국 나아가는 현재를 체감하며, 그 한발자국을 내딛는 자신의 곁에 부모님이 있음을 느끼면서, UNISTAR들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후 입학식이 끝날 때 학생들은 부모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속엔 부모의 진심과 믿음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입학식

UNIST와 새내기들의 첫 만남

대학생으로써 맞이하는 입학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입학식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써 첫 시작을 맞이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25학번의 새내기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입학식을 맞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UNISTAR 여러분 모두는 아주 열정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뒤로 한 채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자신의 화려한 청춘을 향해, 제각기 다른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도착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그 노력을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입학식에 있는 모두가 이 마음가짐으로 25학번 여러분들을 환영했습니다. 곧 다가올 26학번 여러분의 입학 역시 환영합니다. 모든 UNISTAR의 앞길이 꽃길이길 바랍니다.



[진행자의 말_입학식]

- UNI 16기 기장 김태량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입학식 사회를 맡은 UNIST 공식 학생 홍보대사 UNI 16기 김태량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시절 수많은 노력을 통해 UNIST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총 2번의 입학식 사회를 진행하며 입학식에 참석한 새내기 학생들의 눈을 보고 있다면 UNIST에 입학한 과거의 저를 보는 거 같아 무척 설레곤 합니다. 입학식 전 많은 리허설과 연습을 통해 제가 왜 UNIST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약 2년간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UNIST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학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UNIST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내며, 세계를 선도할 leading star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 보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입학 축하합니다 :)

02

신입생 OT

UNIST에서 맞이하는 첫 3박 4일!

새내기학부장님을 비롯한 새내기학부 구성원분들의 따뜻한 환영 인사로 시작된 신입생 OT! 3박 4일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신입생(이하 새내기)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소속감과 애교심 고취

본격적인 OT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내기 498인은 다 함께 유니스트 명예 서약식(UNIST Honor Code)을 거행하였습니다. 명예 서약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명예와 자부심인데요! 새내기들은 그 핵심 가치인 '양심을 지킬 것',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마음에 새기고 UNISTAR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2025년 2월 17일 본교의 특임 교수로 임용되신 이세돌 교수님의 OT 특별 강연은 새내기들의 UNISTAR다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AI 시대'라고 불리는 세태와 이를 살아가는 '인간'에 관해 논해주신 교수님의 본 강연과 더불어, 새내기학생회 측에서 수집했던 새내기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Q&A 코너까지! 과학도로서 관심 가져야 할 문제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교수님과 함께 고찰해 본 것은 새내기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 홍보대사 UNI의 인솔하에 이루어진 캠퍼스 투어(UCRF, 학술정보관 등), 사진 동아리 Studio INGAM의 단체 사진 및 조별 사진 촬영, 새내기학부가 주관한 'UNISTAR의 첫 캠퍼스 생활을 담은 쇼츠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새내기들은 UNIST를 향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의 시작

체계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UNIST의 각 행정 부서에서 새내기들을 위해 직접 걸음해 주셨습니다. 학사팀에서 학사 및 장학 정보를, 학생팀에서 학생 지원 행정 부서·학생 프로그램·학생 지원 서비스·안전 및 편의시설 등 기본적인지만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주신 덕에 새내기들은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각 OT조 조장의 조언 아래 새내기들은 첫 수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쉽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어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경험의 난이도는 달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신입생 OT

UNIST에서 맞이하는 첫 3박 4일!

02

새내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겪어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들던 공교육에서 벗어나, 새내기들은 직접 과목별 담당 교수님과 커리큘럼을 찾아보며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한 뒤 스스로 시간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내기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학하게 될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지 못할까 마우스 클릭을 수없이 연습하던 학우의 모습은 단순히 수강 신청을 넘어, 열망하던 대학에 입학한 후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즐기는 우리들만의 작은 축제를 연상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첫 수강 신청 시작 5초 전, 2025년 2월 26일 오전 9시 59분 55초의 마음가짐입니다. 수년 동안 이어가는 학업 생활에 지칠 때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대학 강의를 수강하던 설렘과 원하는 수업을 듣고자 했던 순수한 열의를 잃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새내기들이 UNIST에서 처음으로 맺게 되는 인연은 대부분 OT조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조별로 모여 인사를 나누고 술게임을 배워보는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겼습니다. UNISTAR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OT조 내 친목을 쌓을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새내기들은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관한 동아리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는 새내기들이 즐기는 첫 교내 문화 공연이자, 어느 동아리에 가입할지 고민하며 OT조를 넘어 다양한 학우들과 인연을 이어갈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생활관 자치회의 '캠퍼스 매치'는 학교 곳곳을 뛰어다니며 학교의 지리를 몸소 익혀볼 기회를 제공하며 OT 기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총학생회의 학잡 입어보기는 새내기들에게 진정한 UNIST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죠. 더하여, 교내 방송국 UNISTATION을 비롯한 각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찾아온 선배들의 작은 공연(방돌이)을 보며 웃음 짓던 순간과, 연극 동아리 NEST의 공연을 보며 감동했던 기억이 아직도 어제 같습니다.



02

신입생 OT

UNIST에서 맞이하는 첫 3박 4일!

낯설고 어색한 학교였지만 학우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교의 지리와 문화를 익혔던 경험은 훗날 졸업을 앞둔 UNISTAR들이 돌이켜 봤을 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OT는 새내기학부 행정실을 비롯한 많은 UNIST 구성원의 열렬한 환영과 지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의 일정을 피곤한 내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 준 새내기들 덕에 비로소 완성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사랑을 보내주신 교내 구성원분들과 이를 실천해 준 새내기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UNIST에서의 학업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 압니다. 다만, 어둠 속 별이 더욱 밝게 빛나듯, 크나큰 좌절을 겪을수록 다가올 행복도 크게 느껴질 것이라 곳곳이 믿는다면 결실을 보는 날도 온다는 것 역시 우리 모두 압니다. 우리의 울골음이 흐트러질 것만 같을 때, UNISTAR만의 굳건함을 견지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3박 4일 OT에서의 순수했던 추억이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지탱해 주길 소망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25학번 학우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We're Pioneers!



신입생 OT

UNIST에서 맞이하는 첫 3박 4일!

02

[진행자의 말_신입생OT]

- 24, 25년 오티준비위원회 최수빈

안녕하세요! 24년 및 25년 오티준비위원회 (이하 '오준위') 최수빈입니다. 23년 도에 새내기로 입학한 후, 코로나 이후 첫 오프라인 오티에 참여하던 때가 정말 옛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ㅎㅎ

제가 새내기학생회에 들어갔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오티 진행을 맡으셨던 MC 두 분이 새내기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선배님이셨고, 'UNIST'라는 학교에 와 처음 마주한 학생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새내기학생회'라니, 괜히 마음에 들어 곱씹어보다, 결국 지원 마지막 날에 구글폼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인연이 되어 새내기학생회에서 계속 활동하며, 뜻깊은 경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24년도 오준위에 참여했을 때에는, 하루 하루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새내기였던 1년 전을 떠올리며, 처음 학교에 온 새내기 후배들에게 새내기학생회가, 이 학교가 좋은 인상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오준위에 참여했을 땐,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작년에 보았던 새내기 친구들이, 이제는 오준위를 이끌며 또다른 새내기 후배들을 마주하고 있단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학식과 총 4일 간의 오티를 운영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이고 오준위 친구들과 점심 저녁을 같이 먹고, 뛰어다니며 정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면 해내지 못했을 거대한 행사를 모두가 힘을 합쳐 무사히 마쳤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6학번 후배님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이 'UNIST'라는 공간과 '새학'이라는 단체는 더없이 소중한, 애정 어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도 입학식과 오티를 통해 긍정적인 인상이 남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4일 간의 오티가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오티조 선배님, 친구들과 친해지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티가 재밌었다면, 새학에 관심이 생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03

새내기 운동회

즐겁게 뛰며 하나 된 하루

지난 3월 28일,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새내기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운동회가 아닌, 새내기들이 서로 친목을 다지고 한 팀이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였죠.

운동회를 하기 전, 참여자 신청을 받고 3-4개의 OT조가 하나의 팀을 이뤘습니다. 이번 운동회에서는 평소에 친해지기 힘든 다른 OT조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친목 이벤트가 사전에 진행되었는데요!

팀을 구성하는 다양한 OT조 친구들과 함께 전략 설명회를 가거나 팀 구호, 드레스코드를 정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운동회에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사전 점수를 받은 팀은 손목밴드와 슬로건 결정 선택권도 받을 수 있어서 팀의 결속력과 참여 의지 또한 높일 수 있었답니다.



각 종목마다 약 10명씩 출전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UNIST 새내기다운 에너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회는 슬로건 발표와 함께 각 팀별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어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어색함 또한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운동회는 총 3파트에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파트에서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다양한 미션으로 구성된 협동게임과 여자 삼각피구였는데요!

협동게임 속 보너스 라운드로 진행된 ‘코끼리 립스틱’에서는 흔들리는 손길에 운동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죠. 새내기들은 매 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팀원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새내기 운동회

즐겁게 뛰며 하나 된 하루

03

두번째 파트에서는 풋살과 농구가 진행됐습니다. 각 팀은 자신이 희망하는 종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덕분에 모두가 더욱 몰입하며 활기차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어요. 풋살 경기에서는 빠른 패스와 날카로운 슈팅들이! 농구경기에서는 화려한 드리블과 슛들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넘치는 경기들이었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고, 박진감 넘치는 순간들이 운동회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삼각 줄다리기와 계주가 이어졌는데요. 삼각 줄다리기에서는 굵은 밧줄을 힘껏 움켜쥔 채 구령을 맞추며 팀원들과 온 힘을 다했습니다. 팽팽히 맞선 긴장 속에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 계주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바통이 이어지고 순위가 바뀔 때마다 운동장엔 함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운동회를 하며 친밀해진 팀원들은 호흡을 맞추며 승리를 향해 함께 달렸고,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팀 모두가 기쁨의 환희를 나눴습니다.

관람하는 학생들의 더 큰 재미를 위해, 경기 중간 중간에 새내기 학생회 국원들이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뺨뺨로 게임, 포스트잇 빨리 떼기, 생크림 받아먹기 등의 미니 게임도 진행했는데요! 미션에 성공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나눠주며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배부하여 새내기들의 입의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기와 다양한 이벤트 끝에 최종 점수 합산 결과, D팀이 종합 1위(440점)를 차지하며 이번 새내기 운동회의 최종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이어 B팀이 2위(420점), E팀이 3위(415점)를 기록했고, A팀, C팀, F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자리를 빛내 줬습니다.

운동회 이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큰 만족감을 보여줬습니다.



03

새내기 운동회

즐겁게 뛰며 하나 된 하루

이번 운동회는 함께 웃고 뛰며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땀과 웃음으로 빛어낸 순간들은 단지 승부를 가르는 장면이 아닌, 앞으로의 학교 생활 속에서도 서로를 북돋아 줄 값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나타낸 집중력과 열정은 새내기들의 가능성과 끈기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늘처럼 서로를 믿고, 스스로를 믿으며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도전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새내기 운동회를 주관한 새내기 학생회는 이번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내기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내기들의 문화와 복지를 담당하는 문화복지국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여 대학 생활이 더욱 다채로워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해 UNIST에서의 생활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자의 말_새내기운동회]

- 새내기운동회 총책임자 전태화

3월이었습시다. 제8대 새학의 첫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꽤 컸습시다.

3월 28일, 2025 신입생 오티가 끝나고 새내기 운동회까지 남은 시간은 딱 한 달 이었습시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참여 인원은 330명, 33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내가 기획, 운영, 진행을 총괄해야 한다니. 막막했습시다.

준영이와 기환이, 연서와 함께 온 힘을 다해 행사를 준비했습시다. 25학번 새내기들이 오티 이후 처음으로 즐기는 새내기학생회의 행사, 신경 쓸 거리가 너무 많았고 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이렇게나 많은 노력이 필요함에 놀랐습시다.

푸드트럭을 부르고, 기념품을 주문하고, 물품과 롤, 조를 짜고... 새내기운동회 전주, 친목이벤트 진행을 위해 새내기운동회 조별 단톡방을 짰을 때 하루 평균 업무 연락 수가 800개를 찍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업무에 허덕이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체육대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시다. 새내기운동회 당일, 진행까지 모두 마치고 25학번 새내기들로부터 재미있었다고 연락이 쏟아졌던 순간이 새내기학생회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습시다.

새내기운동회를 준비했던 마음가짐을 꼭꼭 담아 전합니다. 25학번 여러분들의 모든 유니스트에서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26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새출발 역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온라인 소통창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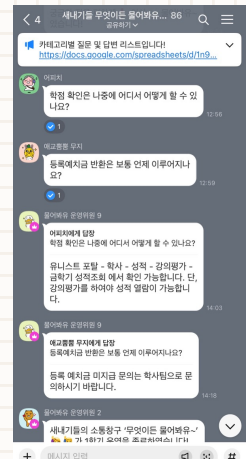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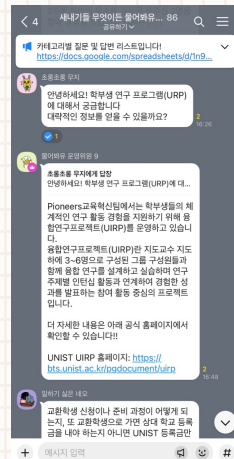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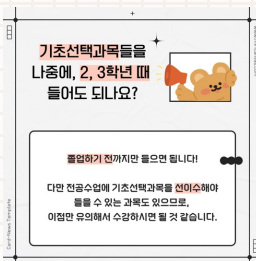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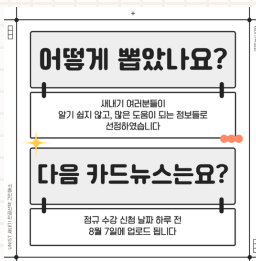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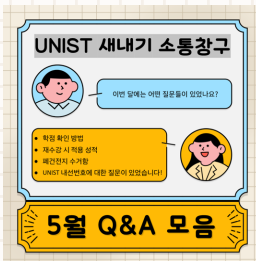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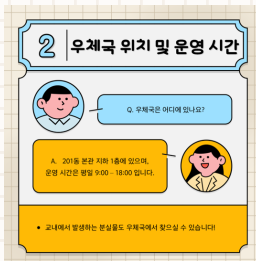
“새내기 무엇이든 물어봐유~”와 전공선택 고민해소 오픈채팅방

새내기 무엇이든 물어봐유~

3월부터 2학기 말까지 진행된 새내기를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익명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새내기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내기 무엇이든 물어봐유~”라는 행사 명칭에 걸맞게 새내기들이 무엇이든 물어보는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었죠! 모든 것이 낯선 새내기들의 첫 걸음을 온라인 채팅방이 함께했습니다. 덕분에 부담 없이 익명으로 UNIST 생활에 대한 실전 팁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질문이라 선배들께 물어보기 신경 쓰였던 것들, 또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고민들, 아무리 혼자 찾아봐도 정보가 나오지 않았던 것들까지! 새내기 소통 창구에서는 새내기들의 “슬기로운 UNIST 생활”을 위해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소해 주며 첫 대학 생활의 든든한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2025 전공 선택 고민해소 오픈채팅방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7월 14일 ~ 8월 8일)에도 새내기들을 위한 소통창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학과로 입학한 UNIST 새내기라면 새내기학부 소속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학기에는 기초 필수 과목을 공통적으로 들어야 하고, 2학기에는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가 요구하는 기초 과목을 수강해야 하죠! 선택 기초 과목에서는 기초 지식과 희망 학과의 전공 지식을 이어주는 일반 물리 II, 일반 화학 II, 기초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II, 미분방정식, 미적분 II 등 기초 선택 과목이나 전공 소개 과목들을 수강하며 본격적으로 학과에 진학하기 전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아 올립니다.

수강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많은 새내기가 2학년이 되기 전부터 희망 학과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2학기 수강 신청 전 약 한 달간 진행된 행사로, 1학년 때 들어두면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나 학과 재학생이 아니면 느끼지 못했을 학과 생활 후기, 졸업 후 진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4

학과 설명회

교수님들께서 직접 설명해주는 학과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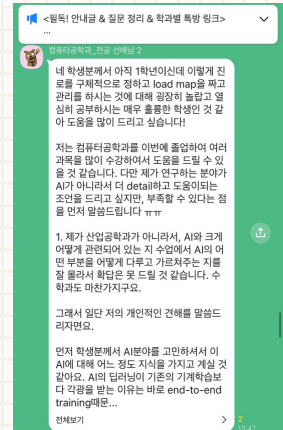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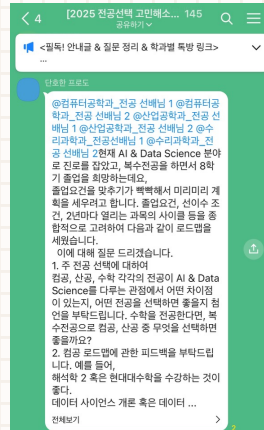
전공 탐색 및 전공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행사들 중, 선배들과 가장 가깝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공 선택 고민해소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새내기들이 관심 있는 학과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고 해당 학과 관련 질문을 하면, 재학 중인 선배님들이 현실적이고 생생한 조언들과 정성스러운 답변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학과 설명회

새내기들이 전공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학과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직 새나기를 위해 마련된 학과 설명회에서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각 학과의 연구 분야와 졸업 후 진로, 다양한 학과 행사 소개 등 각 학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학과 설명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방식으로 학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내기 중에는 가고 싶은 학과가 이미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과 설명회 시간에는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폭넓은 시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죠. 가고 싶은 학과가 아직 없는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UNIST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학과 선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확신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탐색할 기회를 열어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늦은 쪽은 없으니, 각자의 속도로 충분히 고민하고 나아가는 UNISTAR가 되어주세요!



[진행자의 말_오픈채팅방]

- 새내기학생회 학사국원 나예준

새내기 학생회에서는 새내기 학부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과 고민 해소를 위해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무엇이든 물어보아요 오픈채팅방’에서는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을, ‘전공선택 고민해소 오픈채팅방’에서는 각 학과와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받습니다.

시시각각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을 달다 보면 익명의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연락이 자주 오는 유명인이 된 것 같아 즐겁기도 합니다. 평소에 연락을 빠르게 확인하는 습관도 수월하고 적극적인 운영에 한몫했습니다. 아무래도 적성에 맞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운영하는 저희도 새내기인지라, 잘 모르는 질문이 들어올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는 중이니, 답장이 늦더라도 너그럽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픈채팅방이 자유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험기간

어서와, UNIST 공부는 처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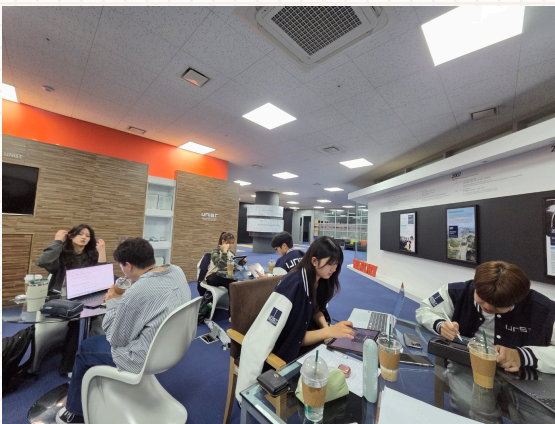
05

새내기들이 UNIST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겪게 된 모든 것은 아마 낯설게 다가왔을 겁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식사나 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스스로 챙겨야만 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새내기들이 점차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고, 어느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생활이 한 달 가량 지나고, UNIST에서의 첫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UNIST에 입학하여 배운 된 내용들은 이제껏 공부한 내용과는 차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영어로 배운다는 점이 대부분의 새내기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새내기들이 낯선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막막한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UNISTAR의 자세, 새내기들은 시험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내기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서로 물어보거나, 친구들과 학술정보관 스터디룸을 빌리며 함께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제를 같이 준비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다독여 주면서 그들 사이의 우정은 조금씩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함께 기숙사로 돌아가거나, 공부를 마친 뒤 야식을 먹고 산책을 하며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새내기들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험 기간까지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막막하게 느껴졌던 모든 시험이 끝나있었습니다. 물론 시험이 끝난 뒤 아쉬움이 남은 새내기들도 있었지만, 새내기들에게는 아쉬움보다는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시험이 끝난 새내기들은 그간 미뤄두었던 취미를 즐기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가는 등 시험 끝난 여유를 맘껏 만끽했죠. 낯선 내용을 영어로 처음 배우고, 시험까지 본 UNIST 새내기 모두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06

앙케이트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매거진에 들어갈만한
'진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많은 학생들이 유니스트의 기숙사에 거주하며 생활하는데요! 기숙사가 처음이 아닌 저도 유니스트의 방들을 보고 놀랐답니다. 바로 다른 기숙사들과 달리 유니스트 기숙사는 아파트 형식이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형식이기 때문에 거실이 있다는게 너무 좋았어요. 이 거실에서 룸메이트들과 야식을 먹으면서 수도도 떨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2학년이 되면 1인실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꼭 다른 기숙사 동들에서 거주해보고 싶습니다!

유 예 원

보통 '첫 만남' 하면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랐어요.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심지어 같은 조까지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완전 낯선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 만남의 묘한 어색함은 피할 수 없었죠. 처음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둘 다 양쪽으로 눈치만 슬쩍슬쩍 보다가 순간 동시에 눈 마주쳐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진모

일반화학 수업에선 EQ라는 과제를 해야하는데요, 문제의 답은 거의 나와있고, 풀이과정을 적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과정을 적어야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계산 후 답만 적고 과제를 내버려서 첫 과제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다음 과제부터는 과정을 아주 잘 적어 냈답니다!! 🍀

김지원

저는 영어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학기 동안 이상하게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하시는 게 잘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영단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교수님들께서도 영어로 수업하시는 게 역시 익숙치 않으시군!' 이라는 마인드로 살았는데요. 놀랍게도 2학기가 되고 나니 강의시간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이 안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1학기에는 귀가 안 열려 있어서 그냥 고급어휘, 수과학 영단어들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귀가 좀 트이니까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아주 휘황찬란한 고급 영어수업을 제공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영어가 귀에 들어오기만 하고 뇌를 거쳐가지는 않는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영어수업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리는 영단어가 이상하게 초급 어휘들밖에 없다면 한 번 귀를 쫑긋 열고 강의에 집중해보세요!

박예나

영어로 모든 수업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 정말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들어도 집중이 잘 안되는데 영어로 하려니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응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거랄까요.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험 때 무언가를 영어로 적어 낸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듣기 실력보다는 독학 실력이 점점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신다현

앙케이트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매거진에 들어갈만한
'진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06

설레는 OT 첫 날, 두근대는 마음으로
집결 장소인 각광(기숙사 광장을 줄인
말이에요!)으로 갔습니다. 길을 헤매느라
약속시간보다 1~2분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할 것 같아 마음이 급했죠. 딱 도착을 하니,
저희 조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둥그렇게
서있었습니다. 자리가 좀 비어보이는
공간으로 가서 옆의 여자분에게
스몰토크를 하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생각보다 티키타카가 잘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반말이 더 편하세요?
반말할까요?"라고 하며 말을 냈는데..!
이동을 하며 나이가 저보다 3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허둥지둥 반말
괜찮냐고 다시 여쭙봤던 당황스러움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 언니와 짝친
먹고 그 때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ㅋㅋㅋ
새내기 때라 할 수 있었던 실수였네요.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보거나 들으신다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세요. 상대방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박예나

기숙사에서 처음 만난 우리 홈메들. 정말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그 자체였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처음이라 설렘, 긴장으로
가득 차서 입사 하던 첫날, "아..
안녕하세요..ㅎㅎ" 서로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저녁도 각자 방에서 먹었습니다.
전부 다 MBTI가 I로 시작하는지 집이
너무 조용해서 다른 방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뻔했습니다. 입사 이틀날
입학식에 다녀와서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 진짜요?" "아 정말요?"를 수십 번
말하며 어색하게 첫 대화를 나누었던 그
거실이 지금은 우리들의 수다 소리로
1초도 안 쉬는 '핫플'이 되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완전 같이 사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우리 홈메들. 가끔
2월, 3월에 서로 존댓말 하며 나눈 카톡
내용을 볼 때면 정말 웃음이 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지빈

평소에는 같은 25학번이더라도 통성명
전에는 반말로 인사를 건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내기 운동회 때 너무
신난 탓인지, 같은 운동회 조원분께 입학
후 처음으로 반말로 반갑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보니 그분은 저보다
세네 살 가량 많은 연장자분이셨고 저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같은
학번이라도 동갑내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안호연

저는 현재 새내기학부 2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1학기 때 오전 수업이 없는 시간표를
경험했었습니다. 덕분에 1학기 때는
늦게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어서 아주
편하게 학교수업을 들으며 여가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 때,
수강신청이슈로 인해서 1교시 수업을
수강하게 되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피곤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달이 지난 지금은 1교시 생활에
어느정도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한

06

앙케이트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매거진에 들어갈만한
'진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학기 초,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울산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타지에서의 생활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낯섬은 단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을 벗어나 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하지 않음'을 오히려 '탐험의 시작'으로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난 뒤에 부산, 경주, 대구, 칠곡 등 경상도의 여러 도시를 혼자 여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역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유적지와 박물관을 둘러보며 그동안 미뤄왔던 여유를 즐겼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낯선 공간에서 얻는 영감과 자유로움 덕분에 오히려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울산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저를 만들어준 출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울산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 낯섬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어쩌면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영감과,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재빈

진근영 교수님의 "디즈어"와 "애나이언,캐타이언"은 화기를 수강한 1학기가 지난 2학기에도 기억이나는 임팩트 같습니다 이번학기 진근영 교수님 수업을 못잡아서 너무 슬퍼요ㅠㅠㅠ

이석민

대학교 오면 버락치기 안 할 줄 알았죠. 하하.

꿀팁으로 1학기에는 수업 끝나면 당일 복습을 습관 들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미적분학], [일반화학], [일반물리](이건 좀 실패했어요.), 또 뭐 있었더라. 아무튼, 1학년 1학기에는 영어 강의에도 적응이 안 되었을 때라 평소에 자신의 언어로 머릿속에 복습하셔야 시험 기간에 버락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1학기 기말 되고 영어 수업도 적응하니깐 그 복습 습관이 다 없어지긴 했는데.. 복습하던 내 모습 어디갔나.. 그래도 중간고사 때 버락치기를 한 번 해보셨으니 괜찮으실 겁니다. (장담은 못드립니다.)

박예나

어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수업 중에 방송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어서, 뭐지? 무슨일이지? 하고 다들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실험실에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약품 하나를 쏟으시는 바람에 모두 외부로 나가달라는 내용의 방송이었어요. 마침 듣고 있던 수업이 출석을 체크하는 용도로 퀴즈를 풀어야 하는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방송을 듣고 당황하시더니 퀴즈 답을 뭐로 작성하건 만점을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다고, 다들 퀴즈 빨리 풀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신나서 퀴즈 답안으로 아무거나 제출하고 우르르 밖으로 나갔어요. 실험 중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강의 시간이 단축되다니, 너무 유니스트스럽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김어진

CA 멘토십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

07

“다른 학교는 1학년 때부터 학과가 정해져 있어서 같은 학과 동기, 선배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재밌어 보이던데.. 우린 그런거 없나...?” 있습니다! 바로 ‘CA프로그램’인데요.

UNIST에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대학생활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팀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CA 한 팀당 멘토 선배 1명과 신입생 6-7명으로 구성되며, 이 팀당 자율 및 지정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과제라고 하면 벌써부터 하기 싫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제는 신입생들 간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울산을 처음 와봐서 뭐하고 놀아야 할 지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 지역탐방을 진행한 조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울산 시내에 나와서 선배가 추천하는 맛집탐방도 하고, 여럿이서 왁자지껄 보드게임을 하기도 진행한 조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문수야구장에 함께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조들도 보였으며, 함께 경주월드를 가서 놀이기구를 타며 스릴을 즐긴 조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활동들을 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07

CA 멘토십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

교외 이외에 교내에서도 CA활동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4월쯤이 되면 유니스트 공학관 앞 잔디밭은 벚꽃이 만개하여 너무나도 예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대학교 낭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내에서 피크닉하기 또한 CA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흠날리는 벚꽃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친구들과 피크닉하는 모습이 책 속의 한페이지처럼 아주 예뻐합니다.



CA의 여러 활동을 바탕으로 새내기들은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열심히 활동한 CA조는 우수CA로 뽑혔습니다. 우수CA는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참여빈도와 횟수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우수CA가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배, 동기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니, 이럴 때 '일석이조'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CA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해보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혹은 너무 멀어서 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교내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도 열리는데요. CA활동으로 다같이 신청하여 모루인형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맥주 취향 찾기, 에센셜오일 감정 아로마테라피 활동을 함께한 조도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들을 만들며 취향도 공유하고 결과물들을 함께 보며 뿌듯해하며 더욱 더 돈독해지는 새내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CA 멘토십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페이지가 될 수 있게

07

[진행자의 말_CA 멘토십]

- 우수 CA, CA59조 멘토 정민택

벚꽃 앞이 훑날리던 봄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서로 이름조차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이젠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괜히 웃음부터 새어
나오는 사이가 되었죠.

조장이었지만 사실 누군가를 이끈다기보단,
그저 이 시간을 함께 잘 즐기고 싶었어요.

캠퍼스 생활 속 작은 심표가 되고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
했어요.

부족한 점도 있었고, 분명 매끄럽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조원들이 항상 웃어주고 따라와 줘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고,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지나고, 각자의 바쁜 일상으로
흘러가겠지만 그 봄날 우리가 함께했던 장면들이
당신 마음 한편에 오래오래 따뜻하게 남아 있길
바랍니다.

CA59, OT20, 그리고 모든 25 새내기
(UNistar) 여러분.

당신의 지금이, 앞으로의 시간이
언제나 반짝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8

성년의 날

UNIST에 입학하고 맞이하는 첫 성년의 날!
새내기학생회와 함께, 앞으로의 빛나는 20대를 생각해볼까요?

오늘을 특별한 하루로!

새내기학생회는 성년의 날을 맞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학생회관 앞에서 포토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새내기들은 대학생활 동안 누구보다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낸 친구들과 포토부스를 방문하여 새내기의 모습을 기록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성년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성년의 날 당일 5월 19일, 아침부터 장미꽃으로 예쁘게 꾸며진 경영관 로비는 성년의 날 행사로 학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성년의 날을 기념할 때는 장미, 키스, 향수라는 3요소를 사용하는데요.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장미를 장미 에이드와 쿠키로, 키스를 타임캡슐로, 향수는 스토리 이벤트를 통해 조말론 향수를 증정하는 것으로 매칭시켰고, 이를 통해 새내기들의 새출발을 응원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 학생들은 장미 에이드와 장미 쿠키를 받은 후, 성년이 된 특별한 하루를 타임캡슐에 간직하기 위해 포토존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캡슐을 받고, 편지를 담은 캡슐을 꾸미는 캡꾸존으로 이동했습니다. 각자 캡슐을 꾸미고 싸인을 남기며 나만의 캡슐을 만드는 모습에서 새내기들의 개성과 동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의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작성한 편지와 함께 사진을 캡슐에 담아 타임캡슐을 완성한 학생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생회 측에 타임캡슐을 맡겼습니다.



모여진 타임캡슐 앞, 순수하고 해맑은 표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편지에 적어 내려간 다짐을 생각하며 의지를 불태우던 눈빛들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빛나는 20대를 위해!

학생들은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대략 반 년 뒤의 시점에 캡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 때, 자신이 적었던 다짐과 고민들을 마주하며 지난 성장과 변화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내기의 풋풋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반 년 사이 달라진 마음가짐과 학교에 얼마나 더 잘 적응하게 되었는지, 무사히 해결된 고민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등을 깨달으며 앞으로 삶의 태도를 생각해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년의 날

08

UNIST에 입학하고 맞이하는 첫 성년의 날!
새내기학생회와 함께, 앞으로의 빛나는 20대를 생각해볼까요?

이번 행사로 총 216명의 새내기들이 성년의 날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로 꾸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들이 본격적인 대학생활을 하며 내딛는 첫걸음을 함께 축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내기학생회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였는데요. 새내기들이 타임캡슐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더 능동적으로 20대를 빛나게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자의 말_성년의 날]

- 성년의 날 준비위원회 김영경

이번 성년의 날 행사에서 하이라이트는 '타임캡슐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소중한 친구에게 건네는 편지'를 작성하고, 당일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과 상징적인 물품을 함께 넣어 타임캡슐을 완성했습니다. 이 타임캡슐은 한 학년이 끝나는 12월에 다시 배부하여 개봉하게 하여, 단순한 추억으로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학기 초의 설렘과 추억을 되새기며 성인이 된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의 성장과 다짐을 다시금 확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며,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할 때 학생들 모두가 진지한 마음으로 지난 학교생활을 되돌아보고 성인으로서는 첫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이야기와 감정을 한 글자씩 눌러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행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과 성숙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덩달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성년의 날 행사'는 같은 청춘의 시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설렘 속에서 성인이 되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또 그만큼 찬란한 청춘을 살아가는 새내기학부 학생들의 소중한 기념행사를 만들고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고 영광이었습니다!

09

UNiverse

유니스트 축제의 장, 유니버스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틀간 유니스트에서는 ‘유니버스(UNIVERSE)’라는 이름의 봄축제가 열렸습니다. 5월 30일은 축제 전야제로 봄축제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액티비티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불 꺼진 경영관을 돌아다니며 힌트와 상자를 찾아 탈출하는 방탈출형 실내 액티비티인 ‘CODENAME: UNI-VERSUS’가 진행되었고, 동시에 ‘UNIVERSE ADVENTURE’라는 실외 팀 대항전도 진행되었습니다. ‘UNIVERSE ADVENTURE’는 물총과 물풍선을 이용해 상대를 공격하고, 미니게임을 통해 무기와 아이템을 강화해 상대 진영의 상자를 더 많이 무너뜨리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날인 5월 31일은 본축제 날로 액티비티들과 더불어 본무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니버스에서는 유니스트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여러 부스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학생회에서는 ‘새아정(새내기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라는 부스를 운영하였는데요.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부스 참가비를 50% 할인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많은 새내기들이 부담 없이 부스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단과대별 부스들을 포함하여 사격 부스, 볶음 요리 전문 부스 등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많은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덕분에 유니버스 기간 내내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죠.



여러 부스와 함께 유니버스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준 것은 UNIST 내부 공연 동아리들이었습니다. UNIST 유일 사물놀이 동아리 ‘유니스트에 흥을 알려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UNIST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 ‘PEAK’, 락 밴드 동아리 ‘Melting Point’ 등 ‘UNIST 내부 공연 동아리들이 준비한 멋진 무대를 줄줄이 선보여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공연 동아리들의 무대에 매료되어 신나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공연은 UNIST 치어리딩 동아리 ‘UNICH’의 힘찬 무대와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연 동아리들의 공연 동아리 부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이번 유니버스에서 맘껏 뽐냈으며, 특히 그 속에서 새내기들의 모습은 매우 빛났습니다.



UNiverse

유니스트 축제의 장, 유니버스

09

많은 학생들이 대학 축제하면 기대하는 것이 연예인 공연일 것입니다. 이번 유니버스에는 래퍼 래원과 가수 헤이즈가 UNIST에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래원과 헤이즈의 공연을 보기 위해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공연장 앞은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래원과 헤이즈의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래원과 헤이즈의 공연을 끝으로 이틀간의 유니버스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니버스 내 내 UNIST는 축제 분위기였고, 끝나고도 그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봄축제준비위원회, 부스를 준비해준 학생들, 공연 동아리들이 있었기에 유니버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니버스는 UNIST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축제 준비에 참가한 새내기, 축제를 맘껏 즐긴 새내기 모두에게 이번 유니버스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니스트에서 즐길 축제도 기대해 봅니다.

[진행자의 말_UNIverse]

- 25년 봄축제준비위원회
부스관리팀원 성예안

저는 2025 봄축제에서 부스 운영팀에 소속되어 동아리, 단과대 등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잘 운영 되도록 물품 구비 및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본래 축제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축제에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위원장님이 국제 협력팀과의 미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생들이 부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영어 신청서를 제작하고, 여러 차례의 교류를 통해 보다 다채로운 축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하나의 행사로 집약된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문제를 조율하는 위원장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축제는 결코 '당연히'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저의 주 업무였던 부스 운영과 더불어 축제를 즐기러 온 분들에게 축제에 대해 안내하는 운영 본부로 업무 지원을 나가 외국인 학생을 응대할 때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행사장 순찰, 뒷정리 등 여러 업무에 참여하여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누구보다 보람차고 즐거운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의 의미와 보이지 않는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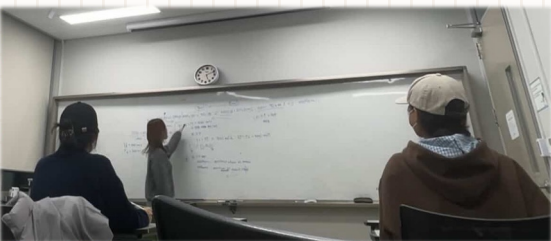
10

학업제도

과탐은 나의 것~!

튜터링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영어라서 하나도 모르겠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새내기학부에서 주관하는 '튜터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튜터링은 기초과목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을 위해 선배 튜터와 연계하여 수업에 대한 적응력 및 기초 학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튜터는 새내기학부장상을 받고 심사를 통해 검증된 열정적인 선배님들로, 한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학업 상담까지 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수업에서 놓친 부분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한국어로 설명을 다시 들으며 보완하고, 이를 통해 중간·기말 대비까지 할 수 있으니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이번학기 과탐은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은데요~! 물론 튜터인 새내기들도 튜터 선배들을 열심히 따라와야겠지만요!



[진행자의말_튜터링]

- 25년도 튜터링 튜터 박소영

저는 새내기학부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터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화학공학과 24학번 박소영입니다.

제가 새내기학부였을때 튜티로써 미분방정식 튜터링을 받았었는데 교수님께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선배님께 쉽게 질문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미분방정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도 후배들에게 튜터링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싶어 튜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 및 중요한 문제를 설명해주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튜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튜터링 하기 전마다 과목 공부를 하고 과제도 풀어봐야 하는 것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튜터링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라고 했을 때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후배들의 열정있는 모습에 흐뭇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1학기 튜터링이 끝난 후 학점 A+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튜터링을 하면서 후배들과도 교류하고 친해질 수도 있게 되어서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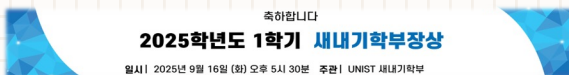
학업제도

과탐은 나의 것~!

새내기학부장상

“대학 가면 꼭 과탐 찍어봐야지!”라는 포부를 안고 온 새내기라면 주목하세요! 아직 전공은 없지만, 한 학기당 학점이 4.2 이상이면 새내기학부장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내기학부장상을 받게 되면 상장과 상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UNIST 포탈 - 포상내역에 기록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공부한 새내기 여러분의 노력들이 ‘새내기학부장상’이라는 결실로 나타난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멋있지 않나요? 새내기학부장상을 받게 되면 내년에 튜터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 내년에는 현재 새내기 여러분이 튜터가 되어 새내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새내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새내기학부장상을 받는 그 날 까지 새내기학부는 새내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새내기학부장상 수상자 소감]

- 새내기학부장상 수상자 주동인

안녕하세요, 새내기학부장상 수상자 주동인입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학교와 새내기학부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를 집중해 들었던 것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서와 강의자료만으로는 와닿지 않는 개념을 교수님들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하였더라도 후에 복습을 하면서 내용을 돌아보면 그제서야 교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들은 교수님, TA분들께 여쭙어 해결하였고, 멘토링 시간과 친구들과의 토의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어렵고 난해하게 다가오는 개념들도 조금 힘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학기였습니다.

11

UNIVISION

선배들에게 듣는 생생한 전공 탐색기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새 찾아온 찬 바람과 함께 시작된 UNIVISION! 1박 2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신입생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건 차가운 가을 바람뿐만이 아니었죠. 우리 새내기들이 1년간의 새내기학부 생활을 끝마치고, 각자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새내기들은 여러 기초 과목을 수강하며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탐색해왔는데요. 빠르게 전공을 확정친 친구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나 여러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전공 선택의 이정표가 되어준 시간

때마침 2025년 10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열린 새내기학부의 UNIVISION은 새내기들의 전공 선택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4동 공학관에 한데 모여, 15개의 학과별 부스와 새내기학생회의 이벤트 부스까지 무려 16개의 부스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로윈 주간에 맞춰 할로윈 컨셉으로 꾸며진 행사장의 깨알 같은 디테일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죠.

새내기들은 UNIVISION 행사를 위해 특별 제작된 가방과 윤이 스티커를 받아 들고, 학과 부스에 들러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빛났던 건 바로 선배들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들려주는 진짜 전공 이야기

단순히 학과 소개를 듣는 것을 넘어, 새내기들은 선배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오고 간 대화는 선배들의 학과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당시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으며 새내기들은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전공 필수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공부의 난이도나 흥미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또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 현재 선배들이 어떤 랩실(연구실)에 소속되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UNIVISION

선배들에게 듣는 생생한 전공 탐색기

흥미로웠던 점은 입학 당시와 현재의 전공이 달라진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입학했을 때 희망했던 학과와 지금 정착한 학과가 변함이 없는지, 만약 바뀌었다면 어떤 계기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험담은 진로를 고민하는 새내기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답니다. 더불어 요즘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해 선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병행했을 때의 장단점과 현실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찬 정보와 즐거움이 가득했던 축제

학과별 부스에 참여하여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고, 푸드트럭 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참여하는 즐거움이 배가되었습니다. 친절하게 고민 상담을 들어주신 각 학과별 선배, 멘토님들 덕분에 딱딱한 설명회가 아닌 즐겁고 유익한 축제 같은 행사였습니다.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의 전공에 대해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새내기들은, 유니비전을 통해 학과 설명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 입니다. 다양한 과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음껏 그 선배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새내기들이 조금 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길 바랍니다.

[진행자의 말_UNIVISION]

- UNIVISION 총책임자 최영훈

유니비전 기획을 시작했던 무더운 여름 방학의 끝자락에서, 어느새 부쩍 차가워진 가을 바람이 올해 유니비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유니비전은 대형 행사를 처음 주최하는 제 자신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도전의 무대이자, 새내기학생회에서 매년 진행한 유니비전을 다시금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학사국장의 의무를 지닌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나 작년 새내기학생회의 학사국원이자 24학번 새내기로서 유니비전을 체험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학사국장이 되어 유니비전을 기획하고 이끌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새내기들의 진로 및 적성 탐색에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열린 행사인 만큼, 모든 새내기분들이 유니비전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얻으셨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유니비전을 통해 현재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유니비전을 통해 새내기분들이 진로에 대한 자그마한 가닥이라도 잡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뿌듯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니비전을 위해 두 달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를 하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장준영, 부회장 김기환. 마지막으로 학사부국장 이태림까지, 많은 것을 의논하고, 업무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니비전을 운영하는 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

앙케이트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매거진에 들어갈만한
'진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UNIST에서의 첫 수업은 '바이올린 세미나'였습니다. 첫 수강신청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한 조장님께서 급하게 잡아 주신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한 번도 다뤄본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첫 수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멀뚱멀뚱 강의실에 앉아있다 보니 어느 순간 교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UNIST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교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영어로 말씀을 하시니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교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신지 10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몇몇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나가는 것인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분들이 왜 나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영어로 여기는 바이올린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니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 없는 학생들은 다른 수업을 수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급하게 짐을 챙겨 부랴부랴 강의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때 함께 급하게 강의실을 나와 덜 창피하였습니다. 그 길로 나와 저는 그 시간대에 들을 수 있는 다른 수업을 바로 찾아보았고, UNIST에서의 첫 수업은 그렇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는 UNIST 영어 수업에 익숙해져서 편하게 수업을 듣고 다닙니다.

항보철준

저는 아침잠이 매우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1학기에는 오전 수업 없이 살아왔는데요. 오후 1시부터 3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 생활패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 시간표는 어쩌다보니 1교시 3일, 2교시 2일로 구성되게 되었죠. 아침잠이 많고 잠귀가 어두우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1교시는 기피하셔야 합니다. 벌써 늦잠으로 수업 놓친 게 2번입니다. 제 말투 진지한 거 보이시죠? 저는 그나마 잠귀가 밝은 구세주 룸메이트 덕분에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정도인 겁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1교시를 룸메이트나 홈메이트와 같이 들으시면 못 일어날 위험성이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건 마찬가지... 뭘 말인지 아셨죠? 새벽형 인간이라면 1교시는 절레절레, 수강신청 행운을 빕니다!.

박예나

낭만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UNIST 속에서 저한테는 소소한 행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화요일과 목요일 3교시와 4교시 사이 쉬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 다들 강의실을 이동할텐데 저는 공학관에서 경영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왜 작은 행복이냐고요? 그 시간에 경영관을 가면 새내기학생회 친구들이 경영관 로비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서 반겨줍니다:) 우연하게도 다들 4교시가 경영관 수업이라서 그곳에 모이는데요, 15분이라는 시간동안 이 친구들과 소소하게 떠들고 장난치는 순간이 너무 즐겁고 UNIST에서 찾은 힐링 중 하나랍니다! 다들 일상속에서 이런 작은 행복을 찾고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승연

앙케이트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매거진에 들어갈만한
'진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12

저는 기숙사 생활을 난생 처음해봤어요!
이불 배게에, 옷만 두박스에, 아직까지도
두 번 밖에 안먹은 엄마가 챙겨준
한약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입사를
했습니다. 빨래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부모님이 정말 그리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제 운명을 만날줄
몰랐습니다. 같은 조도 아니고 동갑도
아닌 맞은편 방에 두 살 많은 언니와
텔레파시 통하듯 서로에게 이끌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불어다니다가 이번 학기에는 약속했다는
듯 룬메가 되었는데요. 각자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새 웃고 떠들고 있고, 밤에
불을 끄고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각자
잠에 들어요. 아직도 청소는 너무 귀찮고
건조기 기다리는 건 못 참겠지만 이제는
룬메 언니랑 떠들다보면 청소도 재밌고
시간도 훌쩍 지나있어요. 룬메 언니는 잘
때 코도 골고 온도 변화에 엄청
예민하지만.. 누구보다 제 얘기에
웃어주고 슬퍼해주고 화내 줘요.
룬메언니가 없었다면 유니스트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니스트에서 살아남기!' 라는 주제에
룬메언니가 바로 떠올랐네요. 언니 우리
평친하자. 내가 언니 결혼식에서 부케
받을게!

서하연

화창했던 날씨에 헬스장에서 나오며
마주한 빗방울. 그 방울 방울들이 주는
절망에 저항조차 못 하고 젖어가며
기숙사를 향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진 비가 끝내 얼굴에 흐르고
체념하려던 찰나, 한 분이 저에게 "우산
같이 쓰실래요?"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나 따듯한 마음씨에 인류애가
솟아났고, 덕분에 행복한 기억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곽진영

저는 유니스트에서 살아남에 있어서 많은
재미가 동아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축구 동아리 EA 덕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동아리에
들어갔을때 선배들도 무서워보이고
어색해서 쭈뼛대고 있었는데, 열정적인
부원들과 편안한 분위기 덕에 저도 금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먼저
다가와줘서 이제는 장난도 많이
칠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제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격려하는
분위기 덕에 근자감이 생겨버렸네요 ㅎㅎ
이제는 겸손을 장착해야될 거 같습니다.
힘든 공부를 하면서도 동아리 활동할
생각에 행복한 첫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석병관

산골짜기 유니스트에서 살아남기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 먹을 것에
아주 진심인 전 유니스트에서 맛집을
찾기위해 요리조리 뛰어다녔답니다.
그러다 저만의 유니스트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법을 찾았는데요 !! 우선
학식이 질린다면 교식으로 한 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맛나용 교식도
질린다면 김밥 천국으로 가서 서
순두부찌개를 먹어보아요. 쌀밥과 먹으면
꽤나 맛있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질릴
때에는.. 도쿄야와 할매집으로 향했어요!
도쿄야에는 계좌이체를 하면 서비스를
주시기에 맛과 가성비가 넘쳐나구요!
할매집은.. 정말이지 한식 러버인 저로서
아주 사랑하던 곳이었어요ㅠㅠ 할매집의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먹으면
시험기간을 버티기에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휴업을 해서
슬프지만.. ㅠㅠ 돌아온다면 당장
뛰어갈거예요!!

허가현

12

앙케이트

새내기학생회에서는 새내기매거진에 들어갈만한
'진짜'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새내기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볼까요?

고등학생 때 거의 경험할 수 없던 수업 빠지기 일명 출퇴.. 이 학교에 오고 나서 수없이 경험해봤습니다.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과 '이건 아는 내용이니깐 안 들어도 되겠지~', '이건 어려운 내용이니깐 들어도 이해 안 되겠지~' 하면 '출퇴할까!?' 라고 장난식으로 이야기하며 실천으로 옮긴 나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ㅠ

출퇴 하면 언젠가 꼭 후회 하지 만 출퇴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네요~

고우림

유니스트 학생이라면 무조건 실험 과목을 들어야해요. 근데 실험 과목은 같은 시간대에 3개의 분반이 있어서 자신의 분반을 잘 확인해야한답니다. 보통 시간표를 쉽게 쉽게 확인하기 위해 수강신청 결과를 에브리타임 앱의 시간표에 옮겨놔요. 근데 새내기였던 저는.... 분반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시간대만 확인하고 에타 시간표에다가 옮겨놔어요. 실험수업 첫날에 어떤 실험을 할지 두근두근한 상태로 앉아있었어요. 근데 출석체크를 하는데 제 이름이 안불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TA님께 여쭙았는데 제가 이 분 반 이 아니라고, 옆 강의실에 가보라는거예요. 네.. 전 잘못된 강의실을 찾아갔던거죠. 학기 초에 강의실에 있던 모두가 절 신기하게 쳐다봐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시간표는 두번, 세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유니스트에 입학해서 실험 수업을 듣게 된다면 꼭 분반 확인 잘하세요!!

이경진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며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룸메랑 마라탕을 자주 시켜 먹었던지 벌써 쿠폰 20장 넘게 모았답니다. 최근에는 그 쿠폰으로 직접 매장에 가서 공짜 마라샹궈도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울산 온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모았냐며 놀라셨네요 ㅎㅎ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라 수혈로 UNIST에서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김단아

시험 전날 밤, 친구들과 대운동장에 누워 다같이 밤하늘을 봤던 적이 있어요. 하늘은 정말 끝없이 넓고 별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존재고, 내가 가진 걱정들도 아주 작을 수 있겠다고 깨달았어요. 동시에,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험을 앞두고 약간의 일탈이었지만, 시험에 대한 걱정과 불안했던 마음이 나아질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이었답니다!

황채림

대학생이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강 신청! 단 한순간의 결과에 따라 학기의 시간표가 좌우되기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임하죠. 제 룸메이트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아침 수업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침 수업 위주로 시간표를 짰었습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자, 잦은 회식으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죠. 다음 날 오후 1시 수업인 저를 부러운 듯 바라보며 "으악!" 소리를 지르고는 허겁지겁 수업에 가곤 했답니다. 룸메이트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도 아침 수업 없는 수강 신청을 하려 합니다.

김다빈



[스ㄴㄱ 백일장] 수상작 소개

한글날을 맞아, 새내기학생회 문화복지국에서는
‘스, ㄴ, ㄱ’ 각 초성에 맞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키워드에 맞는 작품을 제출하는 [스ㄴㄱ 백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무지(無知)의 지(知)

25학번 새내기학부 안호연

키워드 : 선택, 나, 고민

금상

제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오빠가 피아노를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동경하여 시작했던 피아노가 지금은 제 가장 큰 취미가 되었고, 친구와 같이 다니고 싶어 등록한 학원은 공부에 재미를 붙여 또래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UNIST에 진학하기로 결심한 것 또한 저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이곳 UNIST에서 학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진로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점심으로 무얼 먹을지, 공강 시간에는 무얼 해볼지, 어떤 동아리에 지원해 볼지 결정했던 소소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빌려 하나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삶이 고달플 때면 'It is what it is!'를 마음속으로 외치곤 하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된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뜻입니다. 일례로, 전날 새벽 늦게까지 동아리 연습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수업을 출퇴(출석만 등록하고 수업을 듣지 않음)하게 되었을 때 특히 'It is what it is!'를 되뇌입니다. 어제 연습 때문에 잠을 늦게 잤으니, 출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의 도움을 받아 졸음을 견디며 수업을 들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수업을 듣는 대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 글의 도입에서 제 삶은 제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말해놓고, 정작 힘든 순간이나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적(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한다니, 부끄러운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요?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바쁘게 출근하는 모습, 사고픈 것을 모두 살 수 있는 재력을 갖춘 모습... 다양한 답변이 있겠지만, 저는 역시 책임지는 모습이 가장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과오를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지는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It is what it is'에 기대어 사는 저 스스로가 더욱 어린아이같이 느껴집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날의 저는 항상 제가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아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지금에 와서야 10대 시절을 돌아보면 그저 평범하고 어리숙한 청소년이었을 뿐입니다. 착각과 오만과 자만이었지요. 그러나 그 시절의 저와 스무 살의 제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재의 내가 아직은 미숙하고 철없는 사람이란 걸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고백했듯이, 저는 'It is what it is'라는 최면에 걸린 채, 사소하더라도 제 앞에 놓였던 여러 책임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걸 깨닫는 데까지 장장 이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부끄럽다고 생각한 시점부터가 저의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믿으려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소크라테스가 진정한 지(知)에 이르는 시작점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처럼요.

무지(無知)의 지(知)

25학번 새내기학부 안호연

키워드 : 선택, 나, 고민

금상

저는 앞으로 'It is what it is'라는 최면에서 벗어나, 책임이라는 저만의 지(知)로 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 노력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스무 살의 나를 지탱하는 가장 치열하고도 단단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It is what it is'를 되뇌던 시절만큼 편안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불안하고, 버겁게 만들겠지요.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렇기에, 이 고민이야말로 UNIST라는 선택지에 첫발을 디딘 제게 더욱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낯선 울산의 UNIST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저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책임을 하나둘씩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제겐 더 이상 'It is what it is' 같은 달콤한 주문이 주어지지 않겠지요.

저는 완벽한 어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겨우 스무 살을 지나고 있으며, 완벽한 어른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치열한 고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야말로 스무 살의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며, 무지를 깨고 지(知)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고민의 끝에서, 저는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책임질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 끝에도 같은 모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무에게 배운 소망, 한 걸음

25학번 새내기학부 이혜빈

키워드 : 소망, 나무, 걸음

은상

2월 말 기숙사 입주로 분주했던 하루는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간절한 바람들이 306동 각자의 방으로 이사하고 있었다. 바람은 새내기를 환영하듯 힘차게 불어댔고, 날씨는 아직 겨울 끝의 쌀쌀함을 머금고 있었다. 창문 너머 아직 돌아나지 않은 나뭇잎들은 어딘가 영성해 보였다. 나처럼 미숙해 보이는 나무의 존재는 모든 게 서툰 새내기를 위로해 주는 듯했다. 차갑고 낯선 공기 속에서 짐을 풀고,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홈 메이트와 인사를 나누며 대학 생활이 막을 열었다.

입학식, 예비교육 활동, 수강 신청 등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샌가 영성했던 나무에는 벚꽃이 피어났다. 새내기라면 듣는 기초과목인 미적분학을 들으러 104동에 가는 길에는 이쁘게 피어난 벚꽃들이 수업을 가지 말라고 날 붙잡았다. 나무의 속삭임에 못 이겨 가끔은 떨어지는 벚꽃잎을 손바닥에 모아 소원을 빌었다. 벚꽃이 풍성하게 피었을 때 조원과 학잠을 맞춰 입고 가막뭇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처음의 서먹서먹했던 어색한 공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따듯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모두를 감쌌다. 가막뭇 앞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기고, 엽기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새내기만의 봄을 만끽했다. 부모님께 학잠을 입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진을 보내드리며, 고등학교 시절 내가 꿈꾸던 대학 생활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렇게 이루어진 소망만큼, 새로운 소망도 하나둘 생겨났다. 학술 정보관에서 친구들과 공부해 보기, 학교 안의 식당 모두 가보기, 재밌는 동아리에 들어가기 등 새로운 소망이 벚꽃잎처럼 하나둘 피어난 것이다. 나의 새내기 봄은 간절했던 소망이 현실이 되고, 새로운 소망과 소중했던 순간을 마음에 담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계절이었다.

나무에게 배운 소망, 한 걸음

25학번 새내기학부 이해빈

키워드 : 소망, 나무, 걸음

은상

어느새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나뭇잎이 푸르게 짙어지는 여름이 찾아왔다. 기숙사를 나오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숲 내음이 가볍게 스쳤고, 피톤치드 향기가 나를 감싸안았다. 어려웠던 영어 수업도 점차 익숙해지고 대학교 시험에도 적응해 가며 스스로가 조금 대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매연이나 불빛과는 먼 유니스트지만 나는 원래도 시골에서 태어났기에 손대지 않은 자연들이 더 편안했다. 그렇게 1학기는 놀랄 만큼 빠르게 흘러갔다. 룸메이트와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며 작은 소망들도 몇 가지 이루어졌다. 캠퍼스의 나무들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색은 저마다의 빛으로 깊어지고 있다. 봄에는 영성한 모습으로 나를 위로해 주던 나무들이 이제 각자의 색을 내뿜으며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씁쓸해졌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서툴고 잘하는 게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벌써 2학년이 된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나의 걸음을 보지 못한 채 남들의 걸음이 빠르지 느린지 비교하고 소망도, 희망도 잠시 떠오르지 않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장 과정이라고 믿는다. 나무가 보여주듯, 단풍이 떨어진 뒤에도 새로운 잎이 돋고, 다시 벚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새내기로서 빠르게 지나간 새 학기가 끝나면 잠시 허무함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 혼자 제자리걸음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무가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듯,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오는 법이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마음, 조용히 움트는 소망이다.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날 새내기의 풋풋함을 지나 성숙한 어른으로 서있을 것이다.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준 나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설익은 나날의 기록

25학번 새내기학부 김어진

키워드 : 설익다, 나날, 기록

동상

설-익다 [설릭따]

1. 충분하지 아니하게 익다.
2. 완성되지 못하다.

새내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내기, 그러니까, 아직은 영글지 못한 시기의 대학교 1학년. 그토록 꿈꾸던 입시의 끝. 자유, 기대, 그리고 책임. 가까스로 미성년을 벗어난 이들이 미숙함만큼은 온전히 벗어내지 못한 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던져집니다. 대학만 가면, 이라는 말만 일삼던 주변 어른들의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진실이었다면, 정말로 대학만 가면 그동안의 고됨과 고심이 끝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정해진 길을 따라 정형화된 목표를 쫓던 우리는, 막상 광활한 들판에 도달하니 어디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설익다. 우리는 설익은 존재일 겁니다. 지향할 고점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니까요.

덜 익은 과일을 만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온전히 영어 최선의 당도를 머금은 과일과는 달리 과일이 덜 익었을 때에는 대체로 조금 더 녹빛을 띄고 조금 더 단단한 강도를 지닙니다. 손끝으로 눌러보면 쉽게 들어가지 않고, 입에 넣으면 아직은 짙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탓일 겁니다. 아직 익숙한 세상과 사고방식에 매여 부드러워지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완숙하다는 것은 단단함으로 충족되는 상태가 아닌 걸까요.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단단히 버텨야 한다, 와 같은 조언을 들으며, 굳건함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숙의 조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장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면,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익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 해답은 단단함보다는 변화, 저항보다는 수용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숙한 어른은 강도가 아니라 당도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맞서 굳세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풍미를 잃지 않는 사람. 땅에 떨어져 멍이 들더라도 고유한 향을 간직한 열매를 보고 익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이 늘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는 황금빛 벼를 보고 익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성숙이란 견고함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본질을 완성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당면한 환경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풍미를 보존하는 것, 더욱 깊어지는 것, 그리고 끝끝내 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설익음에서 벗어났음을 인지할 지표이자 아직은 짙음이 강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

설익은 나날의 기록

25학번 새내기학부 김어진

키워드 : 설익다, 나날, 기록

동상

캠퍼스에 첫발을 디딘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분홍색 벚꽃과 푸르른 녹음을 거친 캠퍼스는 이제 물들어가는 단풍으로 뒤덮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알리는 계절, 가을이 다가왔다는 신호일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들과 청청한 가을 하늘 아래 풋내기 우리들은 어쩌면 조금은 영글어 있을까요. 우리는 원하던 만큼의 풍미를 머금고 있나요. 이제는 뭍음이 조금은 가셨을까요. 원하던 만큼의 결실을 얻기 전 풋풋함을 잃지는 않았을까요. 감히 예측하건대 우리는 아직 설익은 상태일 겁니다. 하여 오히려 안도합니다. 설익었다는 것은 미성숙에 대한 진단만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의 존재함을 입증하는 징표이기도 할 테니까요. 우리는 아직 원하는 모습으로 성숙할, 완성될 기회를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언젠가 온전히 영글어 고유한 빛깔을, 향을, 당도를 갖출 나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설익음의 풋내음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존재로 영글어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 역시 아직은 짙은 초록빛으로 감각될 설익은 나날의 기록입니다.

부록

새내기매거진 편집장의 말

새내기매거진 편집장, 24학번 화학과 전태화

올해, 25학번 여러분이 입학하고 제 국장님들을 떠나보냈을 때를 기억합니다. 오티가 끝난 후 25학번 여러분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학생활의 서막을 열고 있을 때, 저는 2024 새내기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24년도 오티준비위원회의 막을 내린다는 것, 23학번 선배님들이 새학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 24학번이 이끌어가는 새학이 시작된다는 것. 새로운 새학이 시작된다는 것이 기쁠법도 한데. 서운한 감정이 모여 24학번이 하나 둘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의 막을 내릴 순간이 오고 있는데도,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조건 선배들보다 잘할거야” 라고 외치면서 눈물 흘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펄펄 나오면서도 선배들이 가서 슬프다거나 하는 말보다 내가 선배들보다 잘해보이겠다는 말이 먼저 나왔는지 말이죠.

제8대 새내기학생회는 그 말을 여실히 지켰습니다. 자신있게, 저희는 최고의 새내기학생회였습니다. ‘한울’이라는 울타리속에 열심히 일하는 새내기운영위원회, 그 울타리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저는, 열정만큼 책임감 속에 일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지어놓은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울타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 그 울타리를 믿고 새내기학생회에 들어와준 누군가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책임감은 너무 강해서 함부로 떨칠 수 없는 의무감을 씌우곤 합니다.

애석하게도 유니스트에서의 1년은 여러분들이 그려왔던 대학 생활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구영리까지는 멀고, 영화관까지는 더욱 멀고,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어야 하죠. 유니스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해방감을 넘어서 불안과 긴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게 어떤 종류든 말은 책임감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편입니다. 버려놓은 일에 허덕이면서도 책임감은 절대 놓지 않는 편이죠. 어느 날은 알바를 하다가 손님 다섯 분이 들어와 스무디 다섯 개를 시키셨는데, 한 손에는 하나뿐인 블렌더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책임감을 꼭 붙잡고 있다가 다정함이 도망가버린 적 있습니다. 고작 스무디 다섯 개에 다정함이 도망갔습니다.

새내기매거진 편집장의 말

새내기매거진 편집장, 24학번 화학과 전태화

부록

매장에서 나오는 영문 모를 아이돌 노래의 가사말이 다정함의 자리를 채워주다가, 한쪽 귀에 이어폰을 꼽고 어떤 노래로 꾸역꾸역 다정함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에 이어폰을 뺐는데 그 자리가 너무 공허해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뚝 뚝 울었습니다. 생각보다 다정함의 자리는 커서 따뜻한 물로의 샤워도, 달달한 아이스크림도, 포근한 이불이나 친구와의 전화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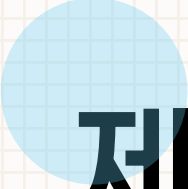
성적에 대한 책임감, 미래에 대한 책임감,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나 약속에서 비롯된 책임감. 어른이 되고 더 늘어버린 책임감을 한 짐 두 짐 쌓아두다가 언제 쌓였는지도 모를 책임감이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마음속에 다정함의 자리를 비워버리곤 합니다. 고작 스무디 다섯잔에, 고작 잠 삼십분에, 고작 신발 안에 들어간 돌맹이나, 고작 한 페이지 짜리 과제 때문에. 보잘 것 없는 것들에도 다정함은 손 쉽게 달아나곤 합니다.

스무디 다섯잔에 달아난 다정함 때문에 한 삼 일을 틱틱대면서 살아보다가, 괜스레 겁이 나 책임감을 한 짐 두 짐 버리고 저 멀리 굴러떨어진 다정함을 주워올렸습니다. 떨어진 책임감은 쉬이도 돌아오던데, 한 짐 떨어진 다정함은 왜 이리 돌아오질 않는지. 다정함 한 짐 줍겠다고 책임감을 열 짐은 버리면서도 선배들 앞에서 영영 울며 “우리가 더 잘해보이겠다”고 소리친 책임감은 쉽사리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이라는 책임감에 다정함이 한 숨 두 숨 섞여있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라고 말하며 덤덤하게 나를 믿고 맡겨준 친구의 다정함, ‘너는 잘 할 거야’ 한 마디로 제 눈에서 눈물이 더 나오게 한 선배의 다정함, ‘선배는 최고의 국장이야!’라고 해맑게 말하던 후배의 다정함. 생각해보면 다정함이 섞인 책임감은 쌓여도 쌓여도 지겹지가 않아 나를 더 열심히 살게 하면서도 더 행복하게, 더 따스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짐들이 여럿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잘 할거라며, 나를 믿고 어떤 미래를 결심한 과거의 내가 남겨둔 한 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을 위한 두 짐, 건강한 나를 위해보고자 생긴 약속들로 이루어진 세 짐. 저 멀리 떨어진 다정함을 주어다가 돌아오면서 내다버린 책임감을 한 짐 한 짐 다시 보다가 그 속에 섞여있는 다정함을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양손 가득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니스트에서는 좀 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 짐에 여러분만의 다정함이 섞여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년도 해야 할 일을 한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도 그 속에 섞여있는 다정함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짊어져야만 하는 책임감 사이사이에 다정함이 한 김 두 김 섞여있길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허덕이다가도 그 책임감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진짜 성장할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유니스트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소개

14

1년동안 새내기학생회를 위해 애쓴
새내기학생회를 소개합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회장단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새내기운영위원회



회장단

새내기학생회의 주축



새내기학생회장

장 준 영

새내기학생부회장

김 기 환

회장단 주요업무

새내기학생회 행사 제반에 대한 기획, 운영
새내기를 대표하여 각종 회의 참석

행정실과의 협업을 통한 새내기 복지 증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

회장단 소개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새내기학생회장단 회장 장준영, 부회장 김기환입니다.

저희는 지난 24년 11월 학우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 속에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된 3월부터 지금까지 새내기 여러분의 즐겁고 주체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새내기학생회는 문화복지국, 학사국, 소통홍보국, 사무국, 대내협력국 등 다양한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활동 전반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는 새내기 운동회를 새롭게 개편하고, 반도체공학과와 함께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상시 소통 창구를 열어 의견을 듣는 등 여러 변화를 시도해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무엇이 새내기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라는 저희 회장단과 국장단의 끊임없는 고민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 속에서 새내기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 역시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학제 개편 논의가 새내기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히 논의하였으며, 이를 교무처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희 새내기학생회는 새내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즐겁고 의미 있는 1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UNIST 첫걸음이 한층 더 밝아지길 바라며, 남은 시간도 함께 좋은 추억으로 채워가길 기대합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새내기학생회장 장준영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24년, UNIST에 입학한 저를 처음 맞아준 것은 새내기학생회였습니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당혹감과 바닥부터 인간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부담감, 학업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저와 아무 연고 없는 이 작은 학생회가 덜어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내기학생회를 꿈꾸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학생회에 들어와 매사에 전력을 다하고, 좋은 선배들과 동기들을 만나며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활동을 하며 입학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던 하나의 이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새내기학생회의 회장이 되어, 애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년 새내기에게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다.' 회장을 다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부회장 기환이와 함께 24년 11월 당당히 총선거에 당선되었고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으로 올라서며 언젠가 스스로 이루어내고자 하나의 말을 품었습니다. '새내기학생회를 위대하게.' 단 한 명의 새내기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새내기가 이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나를 믿고 따라주는 친구들이 학생회 소속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고의 새내기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5년, 국장단과 국원들에게 정말 고생스러운 한 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간간한 회장을 만나 언제나 더 나은 행사를 고민해야 했으며, 늘 새내기의 관점에서 치열하게 의논해야 했습니다. 국장단에게, 잘해주진 못할망정 고생만 시킨 회장이라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스스로의 국서를 꾸리고, 그 안의 국원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어 감사합니다. 모자란 저를, 뒷일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올해 새내기학생회는, 학교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불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추억을 쌓아가는 믿음직한 친구이자, 모르는 것이 생길 때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전대 회장단으로부터 넘겨받아 1년간 소중하게 가꾼 이 자리를 기쁜 마음으로 차기 회장단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26년의 새내기학생회는 더욱 뛰어난 회장단을 필두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부회장 기환아, 네가 없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나날들이야.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마워. 너의 회장이라 정말 행복했어.

저 장준영이 여러분에게 믿음직한 회장이었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새내기학생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_ 새내기학생부회장 김기환

제 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에서 부회장을 맡았던 김기환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글로 인사를 드립니다. 유독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던 만큼, 그동안의 순간들을 짧게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새내기학생회는 1학년 시절 가장 많은 추억을 만들어준 공간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선배들을 만나 함께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낸 시간, 행사 전날 늦게까지 다 같이 함께 준비한 순간들은 제 대학 생활에서 여전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음 새내기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부회장을 맡게 되었고, 그때의 선택은 앞으로도 제 삶에서 꽤 오랫동안 큰 의미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동안의 활동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작년처럼 선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행사에 뛰어들어 즐기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과정은 너무나 서툴고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일정 속에서 정신없이 달려야 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겹치거나, 간부진끼리 의견이 서로 부딪쳐 힘들었던 날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모두 값진 경험이었고, 제게는 큰 성장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앞장서며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한 회장 장준영. 제가 회장을 맡았다더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든든한 리더였습니다. 준영아, 정말 고생 많았고 26학번 OT까지 조금만 더 파이팅하자)

회장을 비롯해 각자 자리에서 200% 이상의 역할을 해준 국장단 모두에게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자부하셔도 될 만큼 최고의 국장단이었습니다. 함께해준 25학번 국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친해지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여러분께도 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이어 새내기학생회를 이끌어줄 친구들, 선뜻 맡아줘서 고맙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NIST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순간’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거나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오히려 오래 행복한 기억으로 남고, 큰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마치고 빈 운동장에 누워 별을 보는 시간처럼요.

첫걸음이 완벽할 필요도, 완벽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ㅎㅎ 각자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색으로 채워진 한 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선택한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듯, 여러분도 UNIST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여정에 좋은 일들이 함께하기를 저와, 여러분 옆의 새내기학생회가 한결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활발한 새내기 아이디어 뱅크



문화복지국장
전태화

문화복지부국장
이연서

문화복지국원
곽진영, 박예나
안호연, 유예원
황보철준, 황채림

국서 소개_문화복지국

새내기들의 문화와 복지를 담당합니다. 새내기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교내에서 챙길 수 있는 복지를 담당합니다. 새내기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국서로, 학교 생활에 즐거움과 행복을 한 스푼 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새내기들이 1년간 지내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국이 돕습니다.



문화복지국 주관 행사

새내기운동회
성년의 날 행사
새내기매거진
캡슐 배부 이벤트
- (크리스마스 이벤트)

문화복지국

활발한 새내기 아이디어 뱅크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문화복지국장 전태화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새내기학생회 문화복지국장 전태화입니다. 저는 사실 2024년, 제가 국원일 때는 학사국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4년 11월, 문화복지국장 제의를 받고 문화복지국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가 출범하고, 새내기운동회가 저의 첫 업무였습니다. 25년도 신입생 오티가 끝난 후 새내기운동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수요조사 이후 계산한 참여 예상 인원은 325명. 내가 이 많은 인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행사를 기획해야한다는 사실에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줄여야 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 대기 시간 제발 줄여!!! 최고의 의견을 내기 위해 새벽까지 연성 높여 회의 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 시간 동안 항상 옆에서 고생해줬던 준영이, 기환이, 연서까지. 넷이서 고생하면서 “이 행사를 성공시키고야 말겠다”고 나누었던 다짐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문화복지국장단을 ‘복복복복’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문화복지국원들과 시간을 나누면서 두 번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협력한 성년의 날 행사에서는 어떻게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것인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긴 회의를 주도하면서 이끌어나가고, 수많은 연락을 나누면서, 학생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꾸린 문화복지국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와 회장단과 연서가, 문화복지국이 논의했던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5학번 새내기들이 좀 더 좋아할까? 였습니다. 항상 더 예쁘게 더 좋게 더 재미있게 행사의 기획을 꾸며가며. 정말 많은 회의와 미팅과 서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내기학생회 문화복지국은 더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유니스트 새내기학생회는 학생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하고, 하루에 회의를 몇 개씩 참석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사를 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이 글을 보는 25학번 여러분의 새내기 생활이, 제가 1년 전에 몸담았던 따스한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나아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열정과 책임감을 나누어 가져준 회장단과, 든든하게, 묵묵히, 옆에서 모든 행사의 성공을 저만큼이나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준 연서에게 특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새내기학생회를 사랑해준 문화복지국원들과, 함께 일한 사무국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9대 새내기학생회 한결 파이팅!

문화복지국

활발한 새내기 아이디어 뱅크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문화복지부국장 이연서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25년도 한 해 동안 새내기학생회 ‘한울’ 문화복지국 부국장을 맡아 활동한 이연서입니다.

‘새내기학생회’라는 이름은 24년도 제가 새내기였을 때부터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1학년 1학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학생회이기에 더 소중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학생자치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4년도에 문화복지국 국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 어느새 ‘부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4년에는 주로 국원으로서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이었다면, 25년에는 부국장으로서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행사들이 크게 바뀌거나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도전도 많고 고생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문화복지국은 이름 그대로 새내기 학생들의 문화와 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새내기학생회가 준비하는 다수의 행사가 문화복지국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서에서 진행된 모든 행사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단연 ‘새내기 운동회’입니다. 더 재미있고 새로워진 운동회를 만들기 위해 종목 선정부터 타임라인, 팀 구성까지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3월 한 달 내내 국장 태화, 회장단 준영·기환과 일정이 끝나면 학생회실에 모여 회의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외에도 성년의 날 행사,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새내기 매거진’까지 참고할 전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된 행사들이 많았지만,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준 문화복지국 국원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또한 문화복지국의 모든 행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국장 전태화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준 회장단 장준영, 김기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행사를 ‘처음부터’ 만든다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도 컸고, 새내기 학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사는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제게 큰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 기획에 대해 스스로 한층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부서원들과 국장단 모두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깊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의 이 경험이 앞으로의 저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내기학생회 ‘한울’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사국

시크한 새내기 전공 선택 도우미



학 사 국 장

최 영 훈

학 사 부 국 장

이 태 림

학 사 국 원

김어진, 나예준

신다현, 조예인

최유리, 허가현

신 규 환

국서 소개_학사국

학사국은 새내기학부의 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유니스트에 처음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는 업무와 더불어, 새내기들의 학사에 가장 관련 있는 학과 선택에 큰 도움을 주는 부서입니다. 아마 학사국이 없었다면 학교에 입학한 새내기들이 더 해매고, 학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학사국장 최영훈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2025년은 제 인생에 오랫동안 기억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시작하고 학사국장으로 임명되면서,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마음속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국서의 국장이 되어 누군가를 이끌며, 활동을 기획하고,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지금, 올 한해를 돌아보면, 이러한 부담감은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주고,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해준 25학번 학사국원들, 그리고 부국장으로서는 언제나 일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 태림이가 있었기에,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25학번 국원면접을 보던 날이 아직 이렇게 생생한데,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갔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네요. 새내기학생회 친구들 덕분에, 올해도 즐겁고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국장단 친구들과 함께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을 이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했던 저였지만, 믿고 맡겨주신 행정실 선생님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학사국

시크한 새내기 전공 선택 도우미



학 사 국 장
최 영 훈

학 사 부 국 장
이 태 림

학 사 국 원
김어진, 나예준
신다현, 조예인
최유리, 허가현
신 규 환

학사국 주관 행사

무엇이든 물어보유 오픈채팅방
전공선택 고민해소 오픈채팅방
유니비전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학사부국장 이태림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학교 활동 중 하나였는데, 계절이 지나고 새내기학생회는 저에게 엄청 크게 자리 매겨졌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배움이자 도전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국서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금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학기 초반에는 행사를 처음 기획해 보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고민해 주고 움직여 준 국원들과 동료 국장단 덕분에 매 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경험으로 꼼꼼하게 옆에서 잡아 준 회장단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업무를 하던 학사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만들어 온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순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행사와 활동에서도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며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번 새내기매거진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새내기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듣고 움직이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소통홍보국

창의성 넘치는 새내기 디자이너



소통홍보국장

박 서 진

소통홍보부국장

서 인 엽

소통홍보국원

김단아, 박수빈

박세진, 양준호

이경진, 한승연

국서 소개_소통홍보국

소통홍보국은 새내기과 새내기학생회 사이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의 홍보입니다. 소통홍보국은 각 국서가 진행하는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 홍보를 담당하고 새내기들과 소통하면서 새내기학생회의 이미지를 담당합니다. 모든 부서의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 가장 인기가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소통홍보국장 박서진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2학년, 2025년도 새내기학생회 소통홍보국 국장을 맡았던 박서진입니다. 오준위부터 학기 중 다양한 행사까지, 새내기학생회 활동을 하며 여러 국서의 선배들과 협업하고 인연을 맺는 과정에서 제 대학 생활은 한결 더 즐겁고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사회에 나가 활동하기에 앞서 대학생으로서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하게 된 학생회 활동이었기에, 제게 많은 일을 맡겨주고 큰 성장을 선물해 준 새내기학생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통홍보국은 행사의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을 담당하며, 학생회 활동을 가장 먼저 외부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실의 'GRIT 챌린지', 학사국의 'UNIVISION', 문화복지국의 다채로운 이벤트 등, 행사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책임지고 새내기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준 단아, 수빈, 준호, 승연, 세진, 경진! 우리 국원들 정말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부국장 인엽이도) 내년 국장단, 소통홍보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

소통홍보국

창의성 넘치는 새내기 디자이너



소통홍보국장

박 서 진

소통홍보부국장

서 인 엽

소통홍보국원

김단아, 박수빈

박세진, 양준호

이경진, 한승연

소통홍보국 주관행사

새내기학생회 주관 행사 홍보물 제작 총담당

새내기학생회 주관 이벤트 및 공지사항 관련 디자인 업무 총괄

그릿챌린지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소통홍보부국장 서인엽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소통홍보국에서 보낸 시간은 새내기들의 활동과 순간들을 담아내며 각 행사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행사마다 다양했던 여러 분위기는 디자인으로 형태를 갖추었고, 그 기록들이 누군가의 대학생활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남겼을 거라 생각하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동시에 학생회 활동을 가장 먼저 외부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쏟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만들어낸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들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책임지고 새내기들에게 선보이면서, 소통홍보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정신없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값진 배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통홍보국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새내기들이 행사를 더 편하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더욱 다채롭게 채워지고 그 순간들이 의미 있게 이어지길 바라며 그 여정을 응원합니다.

사무국

꼼꼼한 새내기 총무 겸 서기



사 무 국 장
박 규 란

사 무 부 국 장
정 지 우

사 무 국 원
고우림, 김동찬
김영경, 김지원
정명진, 우정안

국서 소개_사무국

사무국에서는 예결산안과 회의록을 담당합니다. 새내기들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행사 및 새내기학생회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죠. 만약 사무국이 없었다면 새내기학생회가 돈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학생회로써 역할하는 데 어려웠을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힘 있는 부서, 새내기학생회 사무국입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사무국장 박규란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새내기학생회 한울 사무국장 박규란입니다. 찬 바람이 불어오니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2025년의 봄이 떠오릅니다. 사무국은 예산과 기록을 담당하는 부서라 다소 낯설게 느끼실 수 있지만, 이벤트 상품 수령 안내 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사무국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서투르듯 저도 그랬습니다.

OT와 1분기 감사를 준비하며 구영리에서 8시간 동안 머리를 싸매고 일하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그때의 치열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준 지우 부국장과 사무국원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장준영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챙겨주신 새내기 행정실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열했던 1년을 마치려니 시원섭섭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희의 노력이 담긴 이 학생회가 여러분께 좋은 추억으로 남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무국

꼼꼼한 새내기 총무 겸 서기



사무국장
박 규 란

사무부국장
정 지 우

사무국원
고우림, 김동찬
김영경, 김지원
정명진, 우정안

사무국 주관 행사

전체 부서 회의록 담당 및 회의평가제 도입

24년도 OT 감사 진행

25년도 1,2,3,4 분기 감사 진행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사무부국장 정지우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새내기학생회 ‘한울’에서 사무국 부국장을 맡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올 한 해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유니스트 새내기로 입학하고 나서 다른 대학에는 없는 ‘오직 새내기만을 위한 학생회’에서 함께한다면 저의 대학 생활을 그 누구보다도 더욱 특별히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2년동안 좋은 선배들, 든든한 국장단, 그리고 올해는 25학번 국원들까지 좋은 인연들과 OT, 새내기 운동회, 성년의 날, 유니비전 등을 통해 뿌듯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무국인 만큼 앞에서 행사를 이끄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사무국장, 사무국원들과 함께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들을 기록하거나 행사 예산 관리를 하며 힘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무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새학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이는 저에게 늘 자부심으로 다가와 열심히 새내기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동안 함께한 새학 너무 고마웠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새내기학생회에 항상 관심 가져주신 새내기 여러분 덕분에 더욱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유니스트 생활이 더욱 빛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내협력국

유쾌한 새내기 분위기 메이커



대내협력국장

이 규 화

대내협력부국장

조 연 우

대내협력국원

정민택, 서하연

이승현, 채아윤

국서 소개_대내협력국

대내협력국은 새내기학생회 내부의 친목을 담당합니다. 학생회 내부 친목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학생회가 서로 친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일 때 더 좋은 아이디어와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대내협력국은 새내기학생회 내부 친목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새내기학생회가 잘 굴러가게 도와주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대내협력국장 이규화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수능 끝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종강 시즌을 즐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대내협력국이라는 부서의 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 미적 감각이 무너져 있다는 걸 알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 부국장 연우를 비롯한 부원들이 함께 힘써 준 덕분에 마니또, 엠티, 부서별 여행 등 내부 이벤트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회장단 준영, 기환 덕분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학생회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모두의 도움으로 한 학기를 잘 채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해 대내 국장을 맡으면서 저 또한 한층 성장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내협력국

유쾌한 새내기 분위기 메이커



대내협력국장

이 규 화

대내협력부국장

조 연 우

대내협력국원

정민택, 서하연

이승현, 채아윤

대내협력국 주관 행사

1학기 개강총회, 1학기 새내기학생회 MT, 1학기 종강총회,
2학기 개강총회, 2학기 새내기학생회 내부이벤트, 2학기 종강총회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대내협력부국장 조연우 _ 새내기학생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새내기학생회 한울 대내협력국 부국장 조연우입니다.

작년 학사국 활동에 이어, 올해 신설된 대내협력국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참 남달랐습니다. 대내협력국은 외부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과보다는 조직 내부의 '관계'와 '결속'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새내기의 복지와 학업을 책임지는 학생회 특성상, 자유로운 소통과 솔직한 피드백이 필수이기에, 내부 친목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곧 성과와 직결된다는 생각에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마음속에만 머물게 되니까요.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면서도, 혹여 바쁜 업무 중에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국원분들이 진심으로 즐겨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이 왁자지껄한 웃음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제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새내기학생회 일원으로서 지난 2년은 제게 값진 도전이자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해 준 국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앞으로도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 주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2학년을 맞이할 새내기 여러분의 앞날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새내기매거진 편집위원회

본 새내기매거진을 만든 사람을 소개합니다.



새내기매거진 편집장

전 태 화

새내기매거진 편집위원

곽 진 영 , 박 예 나

안 호 연 , 유 예 원

새내기매거진 부편집장

이 연 서

황 보 철 준 , 황 채 림

최 영 훈



새내기매거진 표지디자인

박 서 진
서 인 업

새내기매거진 내부디자인

김 단 아

새내기매거진을 집필하며, 25학번이 보낸 새내기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즐긴 수많은 행사들과, 그 행사들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 매거진이 26학번 새내기에게는 앞으로 써내려갈 페이지들을 미리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진 제공에 도움을 주신 단체 스튜디오 인감

STUDIO INGAM

인감 소개

안녕하세요, 인감은 13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인물 사진 동아리로, 📷 유니스트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가부” 🎨 각자의 개성으로 사진 속에서 가장 빛나는 “모델부” 🧑‍💻 메이크업과 의상으로 사진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타일리스트부” 3개의 부서가 협력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
문화복지국 사랑해 ~!

*이외 집필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새내기 매거진



지금까지 제8대 새내기학생회 한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갈 제 9대 새내기학생회 한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